



‘아르헨티나 최대 와인 그룹 페냐플로르의 오너 가문이 만든 와인’

뱀버그 라 린테르나 엘 토미요 샤르도네

Bemberg La linterna El Tomillo Chardonnay

지역	아르헨티나 > 멘도자		
포도품종	샤르도네 100%		
알코올	13.5%	용량	750ml
테이스팅 노트	레몬, 꿀 향이 어우러지는 매우 유혹적인 와인으로 오렌지 꽃, 자스민 꽃의 아로마도 열게 느낄 수 있다. 매우 생동감 있는 짙은 과일 베이스 산도감이 마카다미아 너트의 부드러운 구조감과 잘 어우러지는 와인이다.		
페어링 TIP	흰 육류/ 해산물/ 부드러운 치즈/ 디저트		



제품설명



라 린테르나 엘 토미요 샤르도네는 아르헨티나 멘도자에서도 고급 와인 산지인 구알탈라리 지역에서 재배된 샤르도네 100%로 만들어 진 와인이다. 고도 12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포도밭인 핀카 엘 토미요에서는 신선하고 산도감 넘치는 샤르도네가 생산된다. 10개월간 숙성되며 병입 후 15년간 숙성이 가능한 잠재력이 큰 와인이다. 미네랄리티가 풍부하고 부드럽지만 신선한 산도감이 큰 특징으로 아르헨티나 고지대의 기후와 바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화이트 와인이다.

수상내역



2021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7점 Platinum Medal
 2021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6점
 2020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5점

와이너리



아르헨티나 최대 와인 그룹인 그루포 페냐플로르는 명실상부한 아르헨티나 대표 와인, 트라피체와 아르헨티나 내수 시장 1위 와이너리인 핀카 라스 모라스를 소유한 와이너리로 국내 아르헨티나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와인 그룹이다. 이 그룹의 오너 가문인 뱀버그(Bemberg) 가문은 이 명성을 드넓히기 위하여 뱀버그 와인 에스테이트를 설립, 각 나라에서 대표하는 수입사들에게만 와인을 제공한다. 전 세계에서 14개국만이 수입할 수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홍콩, 중국, 한국, 일본에 수출하는 와이너리로 한국에서는 금양인터내셔널만이 이 와인을 수입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판매 세일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와이너리 및 관광지 등을 설립하여 아르헨티나인들을 포함한 전 세계인들이 멘도자 및 아르헨티나의 경치를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힘쓰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